

2016년도 인문자연탐사 보고서

-삶, 세종시를 탐구하다-

세종시 전, 충청남도 연기군의 삶의 흔적을 찾아서

2016. 10. 22

연정원, 이건민, 최형윤, 이원준, 이재진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세종시 전, 충청남도 연기군의 삶의 흔적을 찾아서

연정원, 이건민, 최형윤, 이원준, 이재진

1. 탐사의 필요성

가. 탐사 동기 및 문제의 접근

1) ‘삶, 세종시를 탐구하다.’의 주제를 제시받고 먼저 우리는 세종시에 대해서 무엇을 아는가에 대하여 생각해보았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은, 현재의 세종시는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급진적으로 발전이 이루어졌다는 것과 그로 인해 세종시의 풍경이 어떠한 지였다. 차를 타고 가면서 세종시의 건물과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보면, 우리가 살던 수도권과 달리 시청, 정부 청사 등의 건물과 주거 시설은 모두 현대적이었다. 계획적 개발로 인해 개발 이전, 과거의 흔적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즉, 세종시에는 서울의 인사동처럼 과거의 기억을 담는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행복도시가 개발 이전에 어떤 모습이었고, 과거와 현재와의 접점이 되는 ‘매개체’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 궁금증이 들었다. 또한, 그 ‘매개체’를 찾아 세종시에 이주한 사람들에게 알리면, 이주민들이 연기군에 살던 사람들을 더 이해하게 되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2) 따라서 우리는 먼저 ‘매개체’로 어서각, 송모각, 초려 공원으로 세 가지 장소를 선정하였다. 이 장소의 개발 전 사진을 인터넷 자료 조사를 통하여 구하였고 2016년 현재 직접 그 장소에 답사를 가서 어떤 흔적이 남아있고, 무엇이 변화했는지에 대하여 탐사하였다. 그 후 설문 조사를 통하여 과거의 세종시가 어땠는지에 대해 사람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답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는 선정한 장소의 전과 후를 비교하는 사진과 글귀를 기록한 팻말을 제작하였고 팻말을 제천에 세워 시민들에게 알리려고 한다.

나. 탐사의 필요성

1) 세종시는 계획도시로 주로 이주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과거의 흔적이 현재에 거의 남아있지 않다. 따라서 이주민들은 같은 장소, 다른 시간의 연기군 남면이 어땠는지 잘 알지 못하고 원주민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원주민들을 이해하려면, 그들의 원모습을 이해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살던 장소를 이해해야 한다. 반면, 원주민들은 과거 수십 년간 살아온 터전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된 것이기 때문에 살아온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한다. 이러한 이해 관계의 차이로 세종시 내에 갈등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도담동의 지명을 둘러싸고 원주민들은 원래의 지명을 사용해 ‘방축동’으로 하자고 주장했으나 이주민과 정부는 순수 한글인 ‘도담동’으로 바꾸었다. 이러한 갈등은 결국 세종시의 균형 잡힌 발전에 장애물이 된다. 우리가 과거 개발 직전과 현재의 접점을 찾아 과거를 현재에 투영시킴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 갈등을 완충시키고 원주민과 이주민의 화합을 도모하여 세종시의 상생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 탐사 과정

가. 탐사 일정 및 경로

1) 1일차

▶ 우리 학교 바로 근처에 있는 어서각과 관련된 자료를 조사한 후, 더 많은 정보 수집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청으로 향하여 탐사를 시작하였다.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임수현 주무관 님, 자치행정과 양정봉님께 각각 도움을 받았고, 시청 내 기록물 열람실에서 옛 마을들과 관련된 사진을 얻을 수 있었다. 이후 시청 공무원에게 추천을 받은 LH 세종 홍보관에 방문하여 세종시의 옛 모습에 대한 정보를 얻었고, 세종리 은행나무를 가고자 했지만 출입제한이어서 관계자의 허락을 받고 돌아서 다른 경로로 들어갔다. 은행나무 사진을 찍고, 저녁 식사 후 어서각에 들러 주변 풍경에 대한 사진을 얻었다.



1) 2일차

▶ 오전의 자료조사를 통해 초려 이유태 비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은행나무를 찍은 사진을 관찰하다가 과거에 은행나무를 찍었던 사진 귀퉁이에 있는 건물이 현재 사진에는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 스트리트 뷰를 통해 확인해본 결과 2011년과 2013년 사이의 간격이 있었고, 은행나무 근처에 존재하던 마을 전체가 없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먼저 초려 이유태의 비가 있는 초려 역사공원을 찾아갔다. 비석을 보고 있다가 과거 종촌리에 살고 계셨다가 역사공원 근처 아파트로 이주해 오신 할아버지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후 홍보관의 전체적인 사진을 다시 찍었고, 세종리 은행나무에 도착하여 건물의 흔적을 찾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어서각에 들러 어서각과 주변 풍경 사진을 찍었다.



사라진 마을-다음 로드뷰 출처



은행나무 옆 사라진 건물

1) 3일차

▶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 14분을 대상으로 설문을 받았고, 종촌동 CGV 근방 식당에서 점심을 먹은 후 상가 건물에서 근무하는 서비스업 직종의 세종 시민들에게 설문을 받았다. 설문지의 내용은 세종리 은행나무 주변 마을의 존재 여부 인식, LH 홍보관에 대한 인식, 종촌리의 과거에 대한 인식, 어서각 주변 마을의 존재 여부에 대한 것이었다.

3. 탐구 결과

1) 1일차

▶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는 현재 아름동에 속해있지만, 세종시가 출범하기 전에는 고정 2리에 속해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학교 근처에 어서각이라는 향토문화재가 있으며, 현재 범지기 마을 단지 내에 있다는 것을 알아내었다. 또한 Google Earth에서 어서각을 찍은 위성사진을 연도별로 구분해보니 약간씩의 차이점이 있었다. 직접 확인해본 결과 어서각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모습을 볼 수 있었다.

▶ 세종특별자치시청 문화체육관광과에서는 문화재가 국가 지정, 시 지정, 향토 문화재로 나뉜다는 것과, 세종시 내에서 문화재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이유는 타 지역에 비해 많은 문화재가 있지 않고, 개발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럴만한 여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기록물 열람실에서는 세종시 출범 전, 즉 충청남도 연기군 시절의 마을-양화리, 종촌리, 고정리 등을 소개한 책자를 비롯한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 LH 행복도시 세종 홍보관에서는 사진자료, 책 자료, 세종시 개발 전 주민들과 국가 간의 토지 보상 협상 체결 과정, 문화재 관련 자료, 위성사진 등을 얻을 수 있었다. 이후 세종리 은행나무에 가고자 하였는데, 차로 가는 길은 인위적으로 막혀 있어서 관계자의 허락을 받고 들어갔다. 1일차에 은행나무로 갔던 목적은 600년 된 은행나무를 보러가기 위함이었으며, 따라서 은행나무와 그 주변 사진들을 찍었다.

2) 2일차

▶ 오전에 진행한 자료 조사를 통해 초려 역사 공원에 가야할 필요성을 느꼈고, 세종리 은행나무에도 다시 가보아야 할 이유가 생겼다. 옛 지도를 비교해본 결과 현재 초려 역사공원이 있던 자리에 종촌리가 있었던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세종리 은행나무 근처를 다음 스트리트 뷰를 통해 시대별로 본 결과 원래 있었던 마을이 통째로 없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 먼저 초려 역사공원에 있는 비석을 보러 갔다. 원래 비석을 끝으로 존재했던 마을이 있었는데, 세종시가 개발되면서 원래 초려 이유태 묘 200m 근방에 있었던 비석의 자리를 옮겼다. 이 과정에서 마을은 사라졌으며, 역사공원 근처에 정부청사 건물이 들어섰고 MbRidge라는 건물이 건설될 예정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비석에 대해 탐방하던 와중에 한 할아버지를 만나 진행했던 인터뷰에서는 옛 종촌리의 모습에 대해 들을 수 있었는데, 생각보다 밭과 논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한다. 그 할아버지는 원래 종촌리에 살다가 공원 근처로 이주하셨다고 한다.

▶ 세종리 은행나무에서는 사진에서 확인한 건물의 터를 탐사하여 보았다. 사진의 전월재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벽돌들을 이곳저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파란색 벽돌, 콘크리트, 단열재, 유리 등 이곳이 원래 건물이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들을 확인하였다. 안쪽으로 더

나아가 무성한 수풀을 헤쳐 들어가니 매우 넓은 버려진 마을 터를 찾을 수 있었다. 이곳에서는 전선이 절단된 전봇대, 가로등, 쓰지 않는 화분, 버려진 슬리퍼, 방치된 표지판 등을 볼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이곳에 꽤 넓은 마을이 있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사라진 전월재(현대식 재실)의 흔적과 사라진 마을의 흔적(전선이 절단된 전봇대, 가로등)



초려 이유태 비 주변의 변화(종촌리→어진동)

어서각 주변의 변화(고정리→아름동)

3) 3일차

▶ 오전에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해보았는데, 세종 시민들이 이러한 마을, 그리고 세종시 출범 전의 역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종촌동의 과거를 묻는 질문에서는 답이 시가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논, 밭을 골랐었다. 여기서 세종시 시민들이 연기군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단순히 농촌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설문 조사 결과

(파란색: 정답, 그 외: 오답 혹은 '모른다')

4. 결론 및 제언

가. 결론

1) 우리는 3일간의 탐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세종시는 계획 도시로 설계되어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상했던 대로 대부분의 과거의 흔적들은 사라졌다. 또한 설문 결과,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10년도 채 되지 않는 세종시 과거의 흔적들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

2)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현 아름동)의 자리에 위치하고 있었던 고정 2리, 절대 출입 금지 팻말이 내걸려 있는 양화 2리(현 세종리), 새만금개발청에 자리 잡고 있던 상지마을(현 어진동)은 그 중 일부에 불과했다. 허나 우리는 분명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과거와 새로운 건물들이 세워진 현재 사이에서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소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아름동에는 임금의 친필을 관리하던 어서각이, 양화 2리에는 임난수 장군이 심은 600년 된 은행나무가, 새만금 개발청에는 초려 이유태 선생의 비가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장소들을 바탕으로, 그 주변에 있었던 마을의 흔적들을 어렵פות이나마 찾아볼 수 있었다. 사소하다면 사소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흔적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싶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리기로 하였다. 이 장소에는 원래 이러한 것들이 있었고, 당신도 세종시 시민이라면 이 정도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이다. 우리는 직접 답사한 4개의 장소(양화리 은행나무, 어서각, 이유태 신도비, 세종 홍보관)의 내용을 담아, 변화에 관한 흔적들을 팻말에 담아 제천에 설치하였다.

3) 10년이면 강산도 바뀐다고 했지만, 세종시는 너무나도 많이 바뀌었다. 역사는 어느 한 순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을 누적해 기록함으로써 만들어 지는 것이다. 꼭 100년 200년 전의 변화와 사건만이 역사가 아니다. 5년, 10년 전의 사건도 분명한 역사가 될 수 있다. 최근의 일이라고 그것을 기록하지 않고 방치해 둔다면, 50년 100년이 지났을 때 이러한 과거 모습의 변화를 다시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16세기와 18세기 사이의 17세기가 역사의 공백기로 불리는 것처럼, 기록되지 못하고 흘러간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변화’를 기록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장소가 변해가는 과정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특정 지역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인식을 바꾼다는 것은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원래의 주민들과 새로 이주 온 사람 간의 갈등을 줄이는 데에도 분명한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된다.

나. 제언

1) 설문 조사 결과를 통해 아직 시민들이 어서각, 송모각 등에 대하여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팻말 설치가 직접적으로 ‘매개체’로 선정된 장소에 이루어지지 못했고 일단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제천에 세워 인식을 넓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연구의 제한점으로 생각하여, 우리는 본 연구를 통하여 시민들의 인식이 증가하면 팻말의 설치 장소를 어서각, 송모각 등 매개체로 선정된 장소로 바꿀 것을 제안한다. 그 장소의 현재에 직접 존재하면서, 시민들이 현재에서 과거의 흔적을 찾는 것이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2) 시간적 부족과 기술의 한계로 구현하지는 못하였으나, 과거를 현재에 투영시키는 다

른 방법으로, IT를 접목하여 증강현실(AR)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것을 생각해보았다. 포켓몬 고처럼 특정 문화재가 카메라를 통해 인식되었을 때 스마트폰 화면에 과거의 그 지역의 사진과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담은 애니메이션이 나타나는 앱을 개발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조사한 3개의 장소 외에 많은 ‘매개체’의 발굴이 필요하고, 방대한 콘텐츠 개발이 요구된다. 이는 지자체 차원에서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하여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5. 활동 후기

▶ 2412 이재진: 직접 버려진 옛 마을 터를 찾아가고, 희귀한 자료들을 검색하면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들 수 있어서 좋았다. 또한 이번 기회가 없었다면 가지지 못했을 새로운 인연들을 만들면서 진심으로 기분이 좋았다. 최종적으로 나온 결과물도 만족스러웠고, 발표도 잘 되어서 뿌듯했다.

▶ 2411 이원준: 처음에는 주제가 너무 광범위하여 막막하기도 했지만, 사전 조사만 하고 난 후 무작정 떠나는 탐사도 즐거웠다. 또한 이러한 탐사 과정에서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고, 그것을 직접 탐방하는 것이 신비로운 느낌이 들었다. 없어진 마을의 터를 발견했을 때에는 마치 숨겨진 아틀란티스를 찾아낸 것처럼 짜릿하기도 했었다. 이번 탐사를 통해 세종시와 과거를 잇는 연결다리를 찾아낸 것 같아 의의가 있었던 것 같고, 앞으로 세종시가 나아갈 방향에 있어서 나 또한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직접 제작한 팸말을 제천을 따라 설치하여 이것이 많은 세종 시민들에게 보여지고, 또한 이러한 문화가 세종시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뜻깊은 것 같다.

▶ 1413 최형윤: 다른 팀은 대부분 현재의 세종시를 탐방했으나 우리 팀은 반대로 과거를 탐방하였다는 것에서 뭔가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짜릿했다. 처음에는 어떻게 과거의 흔적을 찾을까에 대해서 막막하기만 했지만, 구글링을 하면서 과거의 파일을 찾고 과거의 지도와 현재의 지도를 한 표지점을 중심으로 찾는 과정에서 큰 짜릿함과 재미를 느꼈다. 또 옛 사진에 나타난 건물의 흔적을 찾았을 때 매우 신비로웠다. 결과물을 얻어냈을 때, 우리의 탐사가 단순히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세종시의 갈등을 해결하는데 일조한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또한 서로 협업하는 팀워크가 우리 팀의 성과에 크게 기여한 것 같아 팀워크의 중요성을 느꼈다.

▶ 1411 연정원: 인문 자연 탐사는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에서만 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었다. 주제 선정부터 탐사, 발표까지 쉬운 게 없었지만, 나름 즐거웠던 것 같다. 주제가 세종시의 과거를 찾는 것으로 정해지고, 우리도 모르고 있는 세종시의 과거를 찾기 위해 여러 정보를 검색하고, 찾아보았다. 3년 동안 생활할 세종시에 대해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중 세종시민들이 알 필요가 있는 사실들을 이번 인문 자연 탐사를 통해 알리면서 뿌듯함도 느꼈다. 3일 동안 뜨겁게 불태우며 세종시를 탐사했던 이번 인문자연탐사 활동은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다.

▶ 1412 이건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예상치 못했던 재미’ 이었다. 시험기간이 끝나고 곧바로

진행된 인문자연탐사였기에 몸도, 마음도 지쳐있었다. 그저 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 뿐이었는데, 이렇게 또 프로젝트를 마주하게 되니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의 프로젝트는 ‘그리 오래되지 않은, 그러나 분명히 많은 것들이 변한’ 이 땅의 모습들을 알아가는 것에 있었다. 우리의 역할을 소개와 기록이었다. 인식의 변화는 세종시민들의 몫일 것이다.

출입 제한 구역을 들어가고, 시청을 방문하고, 가까이 있었으나 알지 못했던 어서각을 방문한 우리의 활동들이 무의미한 일들이 아니었길 바라는 작은 바람이 있다. 이원준 형, 이재진 형, 최형윤, 연정원, 그리고 권영식 선생님에게 2박3일간 정말 즐거웠고, 고마웠다고 말하며 후기를 마무리한다.

6. 참고 문헌

- ▶ 국립민속박물관. 2006. 인류·민속분야 문화유산 지표조사 결과 보고서-마을별 지표조사(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종촌 1리, 고정 2리 편). 한국토지공사
- ▶ <http://map.naver.com/> 네이버 지도
- ▶ 허준영. 2012. “신도시 주민 간 통합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세종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 ▶ <http://local.daum.net> : 다음 로드뷰
- ▶ http://blog.joins.com/media/folderlistslide.asp?uid=pts47&folder=12&list_id=12855792. 2010: 송모각, 전월재 사진 출처
- ▶ <http://www.sj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8>. 2012. 종촌리 과거 사진